

만성간염

개요

만성간염은 침묵의 질환

정기적 검사 통한 조기발견에 노력해야



김부성

〈가톨릭의대 내과교수〉

만성간염이란 최소한 6개월이상 간조직내 만성적인 염증반응이 지속되므로써 그에 따른 간기능장애와 간염 증상이 동반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성간염의 조직학적 분류

되어 나타나고 예후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활동성 간염은 염증세포침윤이 문맥부에서 간세포부위로 확산되어 간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 내지 괴사되므로 예후가 매우 불량하고, 조직학적 손상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간경변증으로의 이행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만성 간소엽성 간염은 때로 조직학적으로 급성간염과 유사한 양상으로 보일 수 있어 임상적 관찰이 필요하고 서서히 만성화되는 것으로 생는 저자들에게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지속성, 활동성 그리고 소엽성간염으로 분류된다. 지속성간염은 염증세포침윤이 문맥부에 국한되고 있다.

만성간염의 원인으로는 여

러가지들 들 수 있는데 우선 바이러스성 간염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간염바이러스는 A형부터 E형까지 있는데 A형이나 E형은 만성으로의 이행이 거의 없고 Delta(D형), 간염은 주로 주중해 연안국가에서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성간염과 관련된 간염바이러스는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이 주 원인이지만, C형 간염바이러스도 흔하게 만성간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에 만성간염을 유발하는 인자 혹은 질환들로는 알콜, 약물, 바이러스, 대사성 간질환으로 윌슨씨병이나 alpha 1 antitrypsin 결핍증이 만성간염을 일으킬 수 있고, 만성간염 환자에서 이러한 원인

들을 모두 배제하고도 원인을 못찾을 경우 꼭 자가면역성 간염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동양보다 구미에서 더 흔한 것으로 알려진 이 간염은 주로 면역기전에 장애에 기인한다고 알려졌다.

만성간염은 침묵의 질환으로 자각증상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주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피로감이나 식욕감퇴, 오심, 구토등을 호소하고 간혹 우상복부 부위에 불편함을 호소하나, 증상 자체가 간손상의 정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학적 소견으로 안구의 공막에 황달을 관찰할 수 있고 간혹은 비장의 종대를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성간염은 주로 B형 간염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어 만성보균자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간염이 반복되면서 간경변증으로 이행하거나, 만성활동성 간염상태로 지속되다가 간경변증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간경변은 간암으로의 발전에 있어 중요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만성간염의 진단은 자가증세가 있을 경우 간기능 검사나 간염바이러스표지자 검사, 간의 영상적인 형태를 파악하여 만성간염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고, 간침생검을 통해 현재의 간염상태를 정확

히 판단할 수 있다.

만성간염의 치료제로서 바이러스성이 원인인 경우(B형 간염 혹은 C형 간염)인터페론치료가 대표적이거나 B형 간염인 경우 그 성적은 매우 낮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의 성적 또한 구미에 비해 매우 낮는데 그 원인은 이 지역의 감염상태가 주로 모태감염이므로 바이러스가 체내 오랜동안 머물면서 체내의 면역학적 공격에 대한 여러가지 방어기재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성 C형 간염의 경우 비교적 아시아국가에서도 B형 간염에서보다는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치료요법으로 만성간염 환자는 안정을 취해야 하고 식이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고칼로리의 음식을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성간염 환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병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간기능검사 및 간암 종양표식자인 alpha-fetoprotein,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간염의 진행정도와 간암의 조기발견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간염 환자중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만성 B형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경우 우리나라 전 인구의 약 7.5%에서 12%가 감염되어 있는 보균자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만성간염, 간경화 및 간암의 60% 내지 70%까지의 원인이 되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환자의 나이, 성별, 면역 상태에 따라 다양한 임상경과를 밟게 되는데, 첫째로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었다가 아무증상도 없이 완전 회복되어 B형 간염에 대한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경우

한 지방간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간기능 검사에서 혈청 AST와 ALT와 같은 간효소 검사치가 상승될 수 있지만 간세포 괴사나 염증세포 침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성간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만성간염은 심한 경우에는 발병 1년 이내에, 일반적으로 5~10년 이상, 드물게는 수십년이 지난후에 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만성간염의 원인으로는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간염 바이러스, 여러가지 약물, 알콜, 자가면역 장애 및 드물게 보는 선천성 대사장애들이 있으며, 원인 미상의 경우도 있다. 이 중 국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B형 간염 및 C형 간염으로 전체 만

만성간염

원인

만성 B형, C형 간염환자

전체 75%이상 차지

바이러스성 간염원인 가장 많아

만성간염이란 여러가지 많은 원인들에 의해 적어도 6개월 이상동안 지속적으로 간기능의 이상을 보이면서 간조직 검사에서 간조직내에 림프구와 형질세포 등의 염 증세포들의 침윤이 있고 간세포의 괴사가 있는 질환이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단순

成人病新聞 創刊16周年을 祝賀합니다

경희의료원

원장 崔永吉

전화: 九五八〇一〇

주식회사 녹십자

회장 許永燮

전화: 五八二二八五五

동아제약주식회사

회장 姜信浩

社長 俞忠植

전화: 九二八〇〇五五

보령제약주식회사

회장 金昇浩

전화: 七六三二八九八

주식회사 종외제약

회장 李宗鎬

전화: 八四六〇一六〇〇

녹색살기기술경제연구소

理事長 李祥羲

전화: 五八五九九八五